

서민장바구니 170억 할인...대파·닭고기 등 관세 0% 적용

**관계 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농축수산물, 4~6월 최대 30% 할인 지원
햇살론카드 보증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고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성실한 저신용자들을 위한 햇살론카드의 보증 한도도 100만원 증액해준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를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부담이 큰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한다. 대형·중소형 마트, 지역 하나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마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2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 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이용하면 20~30%

저렴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만~4만원) 한도이며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 품목이 선정된다.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5월부터 관세율도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닭고기, 칩 제조용 감자, 대파, 무, 종오리 종란 등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명태와 냉동 콩치는 조정관세에서 제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가격이 다소 안정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감자, 냉동콩치, 종오리 종란의 공급이 확대돼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한 농·어가의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 식품기업의 원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량을 국내산 1만, 수입산 2만을 추가 공급한다.

통신 요금 부담도 낮춘다.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 중간 구간 다양화,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 출시 등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3분기 내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통신 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한 성실 이용자의 보증 한도를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한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카드 발급을 지원해주고 있다.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 가능 강화를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 한도도 월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도 3.6~4%에서 1%포인트(p) 인상한다.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상 은행 우대이자 및 서금원 추가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소규모 어가·어선원을 대상으로 어가당 120만원의 직불제도 도입한다. 소규모 어가

품목	지원방식	세율(현행-변경)	지원기간 / 물량	지원효과(억)
닭고기	할당 증량(+3만톤)	20~30 → 0%	~6월30일 / 3만톤	172억
물고기(4개)	할당관세 신규적용	27 → 0	~6월30일 / 5천톤	12억
무	할당관세 신규적용	30 → 0	~6월30일*	2억**
명태	조정관세 제외	22 → 10	~6월30일	54억**
농·어가 등 지원 (3개)	할당관세 신규적용	30 → 0	~11월30일 / 1.3만톤	38억
냉동콩치	조정관세 제외	24 → 10	~12월31일*	29억**
종오리 종란	할당관세 신규적용	12 → 0	~6월30일 / 10톤	1억

5월부터 관세율 인하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2만2000곳, 어선원 약 1만5000명 대상으로 약 512억원의 지원해주는 셈이다. 약 8000여 개의 1038억원의 정책자금 상환도 1년간 유예한다.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국제정지집으로 마련해 주류시장 유통 및 가격경쟁을 활성화한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다.

도·소매업체 간 거래수량, 지급조건 등의

사전약정에 따른 가격 할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부는 거래조건, 업체 유형 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 부담이 줄어든 소매업체의 할인행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는 6월까지 은행 간, 은행-비은행 간 경쟁 활성화 및 진입 정책을 재점검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업체 간 경쟁 등 전반적인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이슬 기자



기아, '더 기아 EV9' 세계 최초 공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한 기아 두번째 모델

기아의 대형 전기차 SUV인 EV9이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는 EV9이 이동의 개념과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아는 29일 "The Kia EV9(더 기아 이브이 나인)"을 소개하는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영상을 기아 글로벌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기아가 이날 전 세계에 공개한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기아의 두 번째 모델이다. 기아의 지속가능성 비전을 앞당기고 이동에 대한 개념과 방식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는 플래그십 전동화 SUV다.

기아는 EV9이 트렌드와 첨단 기술에 관심이 높으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혁신적인 공간과 주행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EV9은 ▲99.8kWh 배터리와 다양한 효율 극대화 사양으로 국내 인증 기준 500km 이상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목표 ▲EV 최적화 차체 설계·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반 세계 최고 수준 안전성 확보 노력 ▲고속도로 자율주행(HDP, Highway Driving Pilot)·기아 커

넥트 스토어(Kia Connect Store)·무선(OTA, 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

'오퍼티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디자인을 선보이는 한편 기아의 '3단계 지속가능한 디자인 전략'을 최초 적용해 새로운 이동 경험을 선사할 공간도 확보했다.

EV9은 ▲오도 플래시 아웃사이드 핸들 ▲디지털 사이드·디지털 센터 미러 ▲메리디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빌트인 캠 2 ▲디지털 키 2 ▲전자식 후드 래치를 적용한 프론트 트렁크 등 플래그십에 걸맞은 다양한 편의 사양도 적용했다.

기아는 EV9(2WD·4WD)을 시작으로 추후 GT-line 모델과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을 더해 총 4가지 라인업을 운영한다. 2분기 중 EV9(2WD·4WD) 구매를 희망하는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계약을 받는다.

기아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EV9과 EV9 GT-line을 전시하고 우수한 상품성을 고객들에게 직접 알릴 예정이다.

김재환 기자

"물 온도·양 조절"...테팔, '무선주전자 카페 컨트롤' 출시

일정한 물줄기로 드립커피 제조

테팔은 '무선주전자 카페 컨트롤'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일정하게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물이 나오는 노즐을 연구해 최적의 너비와 각도를 찾아 설계한 핸드드립 전문 포트다. 드립커피를 내릴 때 중요한 요소인 물의 양과 온도·방향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8단계의 온도 조절 기능으로 커피나 차 등 사용자 필요에 맞게 물을 준비할 수 있다. 40도부터 60도, 70도, 80도, 85도, 90도, 95도, 100도까지 조절이 가능해 드립커피뿐만 아니라 녹

차, 홍차, 백차, 레몬수 등 각각의 온도에 맞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커피를 내리는 데 적합한 80~95도 구간은 5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다. 100도까지 한 번에 끓일 수 있는 터치식 디지털 버튼 패널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40~95도까지 원하는 온도에 맞춰 60분간 보존할 수 있어 재가열의 번거로움 없이 마지막 잔까지 음료를 따뜻하게 마실 수 있다.

인체공학적 핸들 구조로 초보자도 쉽게 드립커피의 물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외부에 물의 수위를 볼 수 있는 창이 있어 남은 물의 양 확인이 가능하다. 분리 가능한 뚜껑으로 내부까지 깔끔한 세척이 가능하다. 본체 내부는 환경



호르몬과 부식 걱정 없는 통 스테인리스 소재다. 손잡이와 뚜껑은 열을 차단해주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해 안전성을 높였다.

서선욱 기자

5월 KTX 2명 이상 다자녀·임산부 50% 철도 교통비 할인 추진

SRT도 봄·가을 기간 운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

정부가 서민들의 교통비 물가 부담을 덜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KTX·SRT 등 철도 교통비 할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를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철도 교통비 할인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그램 등 서민 주거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KTX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인 동반석에 다자녀(2명부터)로 등록된 가족이 철도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 할인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임신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의 운임도 50% 할인 제 공한다.

SRT는 봄(4월 1일~17일)·가을(10월) 기 간 중 승차율, 조기예약 시점 등에 따라 운 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한다.

또 정부가 여행가는 달로 정한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 최대 50% 할인, 내일로 패스 1만원 할인 등을 지원한다.

어린이날 연휴(5월 5일~7일), 석가탄신일 연휴(5월 27일~29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07개 휴게소에서 지역특화 간식 최대 33% 할인, 세차비용 최대 50% 할인 등을 통해 여행비용 부담을 더욱 낮춘다.

외국인 방한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항공 노선 조기 증편에도 나선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한·중·동남아·일본 노선 등 국제항공 노선을 2019년 대비 약 80~90% 수준으로 조기에 회복해 내수 진작 을 도모한다.

특히 지역 국제공항(5개 공항, 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 외국인 방한객 확대를 위해 부산·대구·충북·전남·강원 등 5개 지자체, 한국·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해 외국인 입국 유인책을 강화한다.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 면제, 운항지원금 및 노선 홍보 등을 확대한다. 또한 공항에서 관광지와의 도심까지 연결하는 대중교통·셔틀 버스 등을 증편하는 등 공항 연결 교통편 개선노력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동북아(일·중·홍콩·대만 등) 노선 대상 인천공항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일 5명씩 6개월 이내 재방문 무료 항공권 배포(5~7월), 항공사 할인 프로모션 등 해외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 여행 심리 회복세가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공·철도 등 교통부문의 관광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아모레퍼시픽, 에어리 헤어 스타일링 라인 출시



아모레퍼시픽의 남성 토탈 스타일링 브랜드 '비레디(B.READY)'가 '에어리 헤어 스타일링'

라인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비레디가 지난해 11월 '남성 토탈 스타일링 브랜드'로 새롭게 정체성을 정립한 이후, 제품군을 확장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헤어 라인이다.

에어리 헤어 스타일링 라인에 그루밍 토닉, 킬 크림, 스프레이 총 3가지 제품으로 구성했다. 지속력은 강하지만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유나 기자

프리드라이프, 방콕·다낭 여행 기획전... '5월 연휴 한정'



상조 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황금연휴 한정 프리미엄 여행상품 방콕·다낭 패키지를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태국과 베트남 2개국 상품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4일에 출발하는 3박5일 일정이다.

전 일정 5성급 호텔 숙박과 현지 특식 제공은 물론 5월 황금연휴에 대한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적기 항공편 확보

의 달을 앞두고 황금연휴 한정 프리미엄 여행상품 방콕·다낭 패키지를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태국과 베트남 2개국 상품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4일에 출발하는 3박5일 일정이다.

전 일정 5성급 호텔 숙박과 현지 특식 제공은 물론 5월 황금연휴에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국적기 항공편을 확보해 편안한 이동을 돕는다.

태국 방콕·파타야 패키지는 해양 스포츠와 태국의 대표 관광지 방콕·파타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액티비티와 마사지 등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베트남 다낭·호이안 패키지는 휴양이 다낭과 호이안을 여행하며 자연 명소와 문화유산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뉴스